

## 충청지역 스님들 교정전문가 '학구열'

20여스님 경기대 대학원서 '교정교화' 과정 수강



대전 충청권 교정위원스님들이 수용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대학원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9월 8일 오후 6시 30분, 3기 경기대 대학원 교정교화 전문화과정 강의가 처음 열리는 대전 유성문화원. 모처럼 학생이 된 20여 스님들을 비롯해 40명이 수업에 열중이다. 참가자들은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대전·충청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정위원들.  
 강의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스님들의 열의를 지켜보던 법무부 교정위원회의중앙회 회장 해명 스님(대전 해명정사 주지)은 불교 교정위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12기 과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실의 절반을 스님들이 차지한데다가 나머지 20명 가운데 15명도 교정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교정위원을 희망하는 재가불자였던 것.  
 오랜 세월 만주먹으로 일궈낸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포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3기 과정에 등록된 교정위원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원 과정에 등록된 스님들의 반응에서 변화의 흐름과 기대가 읽혀진다.  
 "교정활동도 이전 품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수용자들의 심리를 모르고서야 교정이 되겠느냐" "전문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펼 날이 멀지 않았다" 경기대 대학원이 대전에서 수업을 연 것은 2기에

이어 두번째. 대전과 수원을 오가며 1기 과정을 수료한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공 스님(대전 환룡사 주지)이 대전지역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대 대학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를 덜었다.  
 대전에서 수업을 열게 되자, 교정활동에 열정을 보여 왔던 해명 스님과 진공 스님은 동료 교정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대전교도소에서 매일 한차례 '자매법회'라는 상담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의당정사(도담심인당 주교)는 전문화 과정을 이수하자는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수용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면 수용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원주 청주 공주 등 7개 교도소 교정위원인 연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활동을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10명의 신도들과 함께 등록했다. 한달에 300여통의 편지를 쓸 만큼 수용자 포교에 열심인 일봉 스님은 14년간의 경험에서 열심히 활동할 '사람'의 절대 부족이 가장 힘겨웠다. 그런 그에게 이번 전문화 과정은 이를 해결하는 돌파구인 셈이다.  
 일봉 스님은 "그동안 수용자 포교가 '원력'에 의해 이뤄졌다면,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고생까지 해야 하는 교정활동이 이왕이면 더 좋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박봉영 기자

## 가야산 골프장 다시 추진

해인사·지역주민, 대책위 구성 "결사 반대" 건교·내무장관 출신 등 "구상 단계"

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었던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18홀)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골프장 건설 불가 결정이 난지 불과 2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  
 해인골프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사람들은 내무·건설부장관·대구시장 이상희 씨와 대구시청 국장을 지낸 서상택 씨다. 이들은 최근 골프장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자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해인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서상택 씨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최고의 정화시설을 갖추고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골프장 건설에 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해인사 주지 현을 스님과 대구 환경운동연합 문장식 운영위원장, 덕곡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장 여보연씨는 최근 모임을 갖고 9월 말경 가야산을 골프장 개발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건설사업주가 골프장 사업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경우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기로 합의했다.  
 해인사 재무국장 진각 스님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장 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판결난 문제고, 지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곡면 주민 장기화씨는 "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대책위를 무산했는데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 골프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7월 경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우리의 산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세 수입이 골프장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1990년 가야개발(대표 이상경)에 의해 추진됐으나 상수원 오염 등의 이유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 환경단체, 해인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다. 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됐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분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분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현대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식을 드립니다.

## 한국불교 1994~2004를 만나다

부다피아 '보도사진으로 보는...' 갤러리 오픈

현대불교신문이 창간한 199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불교 현대사를 200여 장의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다. 취재 일선에서 촬영한 주요 사진을 모아 '보도 사진으로 보는 한국불교 현대사' 갤러리를 9월 14일 오픈합니다. 불교계의 현재 모습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 주소 : http://hompy.buddhapia.com/homepy/photobuddhapia/

## 금주 '계율 특집' 부록 발행

타블로이드판 16면

## 美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자비를

종단협, 범종단적 모금운동 펼쳐기로

불교계가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9월 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이재민에게 자비 손길을 전하는 모금운동을 범종단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각 종단

별로 30일까지 카트리나 이재민들 기 성금을 모아 불교계 명의로 구호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도 9월 30일까지 불교계 언론사를 통한 성금모금 광고와 ARS 운영을 비롯해 교구본사별로 현수막과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원우·남동우 기자

##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동화로 신청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문의 02)2004-8211~2

'할'

오늘 뭐 했어?  
 보디시피 똥도 안지키고 그냥 놀았지  
 너 선종승가의 청규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하루 알하지 않으면 하루 밥먹지 않는다  
 그림·조태호  
 법혜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사 과 문

시사지 월간중앙은 최근 다룬 불교계 관련 기사에서 출가자의 인격과 불교계의 신성성을 훼손할 내용을 게재하여 제작·배포한바, 이에 불교계 및 그 관계자 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8월호 '갓 쓴 양반들의 성담론' 글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사례를 담음으로써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또 9월호 '조계종의 4대 의혹을 캔다'는 제하의 조계종단 비리 의혹 제기로 인해 조계종단의 명예에 누를 끼쳤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간중앙은 한국 불교계의 위상을 폄하하려는 어떤 사전적 의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월간중앙은 실추된 종단과 불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9월 9일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월간중앙